광주·전남 4곳 20명 출사표

■6·4 재보궐선거 21일 후보등록 마감

영광군수 9대1, 광주 시의원 4대1 경쟁률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모두 9명의 후보가 등록,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의원(남구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는 4명, 그리고 남구 기초의원 선거에는 3명, 광양시의원 보궐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영광군수 후보로는 9명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에서는 정기호 전 전남도의원이 등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규현 전 영광군의회의장, 김성환 전 호남일보 사장, 김연관 전 전남도의원, 김천식 씨가 등록했다. 또 장현 호남대 교수와 전태갑 전남대 교수, 최종걸 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언론특보 , 조기상 전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광주시의원을 선출하는 남구 제1선거구에는 김선문 전 남구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서의환 전 동양가스 대표,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승기 씨, 무소속으로는 강도석 전 광주시의원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광주시 남구 기초의원(가선거구) 선거에는 남광인 전 남구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김점기 전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박석순 18대 총선 강운태 국회의원 당선자 청년조직위원장 등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광양시의원(다선거구) 선거에는 박봉묵 전 광양시청 기획감사담당관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민주노동당에선 조길호 광양노동상담소장, 무소속으로는 김성호 진상면발전협의회장과 박필순 전 전남도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 기초자치단체장(영광군) 후보

소속	이름	나이	학 력	경 력
통합민주당	정기호	53	조선대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전 민주당 함평·영광군 지구당 부위원장
무소속	김규헌	57	조선대 부속고교 2년 자퇴	전 제3대 영광군의회의장
무소속	김성환	55	송원공전 산업미술과 졸업	전 호남일보 사장
무소속	김연관	65	조선대 법학과 졸업	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무소속	김천식	66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1년 재학중	전 영광군청 직원
무소속	장현	51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정치학 박사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무소속	전태갑	66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졸업	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무소속	조기상	70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전 정무장관
무소속	최종걸	45	한국외국어대 경영학석사	전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언론특보

■광주시 광역의원(남구 1선거구) 후보

통합민주당	김선문	47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 광주 남구의회 의원
자유선진당	서의환	61	미기재	전 동양가스 대표
민주노동당	이승기	30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 2년 재학중(석사과정)	공공도서관 푸르미관장
무소속	강도석	53	광주제일고 졸업	전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 기초의원(남구 가선거구) 후보

통합민주당	남광인	58	조선대 정책대학원 졸업	전 광주남구의회 제2대의장
무소속	김점기	49	조선대 전기공학과 졸업	전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무소속	박석순	34	송원대 1년 재학중	제 18대 총선 강운태 국회의원 당선자 청년조직위원장

■전남 기초의원(광양시 다선거구) 후보

통합민주당	박봉묵	60	순천대 법정학부 1년 휴학중	전 광양시 기획감사담당관
민주노동당	조길호	36	조선대 병설공업전문대학 전자계산과 졸업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무소속	김성호	57	하동종합고교 졸업	전 광양읍 개발과장
무소속	박필순	47	한양대 행정대학원 졸업	전 전남도 도의원

"깨끗한 선거 실천합시다"

6월 4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1일 광주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에서 광주시 시의원(남구 1선거구) 및 기초의원(남구 가선거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관위 관계자 등과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를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 '시동'

'선명 야당' 기치 4파전…치열한 경쟁 예고

통합민주당이 21일 원내대표 선거 공고와 함께 후보등록에 들어가면서 27일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시동이 걸렸다.

주자들은 4파전으로 치러질 이번 경선에 나서 '선명야당' 기치와 비교우위를 내세워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전략이어서 불꽃튀는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원혜영 의원은 '차기를 준비하는 강한 야당', '대안 있는 유능한 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CEO 출신인 원 의원은 온화한 이미지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에 맞서 재야 민주화 투쟁 경력과 '강력한 원내정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원 의원과 같은 수도권 출신으로 '1번 타자론', '유연한 뚝심'을 내세운 김부겸 의원은 '당의 변화를 이끌 원내대표', '한나라당을 흔들 야전 사령탑'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김 의원의 핵심 공약은 '예비내각' 도입. 기존의 정조위원회 체제를 원내 3분의 2, 원외 3분의 1의 비율로 구성된 분야별 '예비 내각'으로 확대 개편해 정부 여당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정책역량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출신이란 약점에 대해선 '지피지기'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18대 당선자들에게 보낸 '모수자천(毛遂自薦·자기가 자신을 추천함)의 변'이라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을 통해 "변화를 앞장서 일으켜 한나라당에 넘어간 수도권 중간층을 다시 뺏어오겠다"고 밝혔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전북 출신 이강래 의원은 21일 비전 자료집을 발간, 출사표를 던진 뒤 당의 정체성 확립 방안으로 '의원협약' 체결을 제시했다.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주요 어젠다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내 협약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충청권의 홍재형 의원이 내놓은 슬로건은 '국민에게는 신뢰를, 당에는 희망을'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정책통이란 점과 총선에서 충북권의 약진으로 전국정당화에 기여했다는 세일즈 포인트를 십분 활용, '정책정당', '전국정당', '강한 야당'을 강조중이다. /연합뉴스

"여당 역할 제대로 하는지 반성하라"

떠나는 김용갑 쓴소리

'원조보수' 김용갑 의원이 이번에는 한나라당을 향해 고별사 형식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17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출발한 지 100일도 안돼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정지지도는 20%대로 떨어지고 당지지도는 30% 가까이로 떨어지느냐. 떠나면서 걱정이 태산같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오늘은 당 대표와 동료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떠나겠다"면서 "지금 한나라당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나라당의 정치력이 살아 있는지, 과거 야당 시절의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최선을 다한 것인지,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 등과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은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전략적으로 미스한 것은 없느냐"면서 "한미 FTA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쇠고기를 (한미정상)회담 전에 했나. 6월에 해도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책임지는 장관 없어…인적 쇄신해야"

원희룡 라디오 대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1일 "쇠고기, 대운하, 심지어 대북 정책 문제까지 곳곳에서 정책이 제대로 조율이 안되고 준비가 안돼 민심을 자극하고 있는데 어느 장관이나 부처 하나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며 내각을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모두 홍보 타령만 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모든 비난과 책임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당·정·청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하는데, 특히 행정부쪽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며 총리 이하 장관들의 일하는 자세부터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를 들어 민심이 매우 성났는데 성난 민심앞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바꾼다는 대통령의 인사철학에 기대어 책임을 안지고 넘어가려는 몰염치한 자세로는 장관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8대 국회 개원 전 院 구성 사실상 무산

제18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할 예정이지만 개원 전 원구성은 힘들 전망이다.

국회법상 원구성 법정 시한은 총선 후 최초의 임시국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 18대 국회의 경우 최초 임시국회 소집일이 6월5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6월7일이 원구성을 마쳐야할 법정 시한인 셈이다.

현재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와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그동안 양당 원내대표의 위임을 받아 원구성을 위한 몇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양당은 원구성의 필수사항인 상임위 배정이나 위원장 배분 문제는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통폐합 문제만 몇차례 협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의 환경업무를 행정자치위에, 노동업무를 보건복지위에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버시바우 "孫대표, 사적 대화 공개해 놀랐다"

민주 "쇠고기 문제, 사적 대화 아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전화통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당(민주당)에서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데 대해 좀 놀랐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유명환 장관 주최 주한외교관단 리셉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인 대화'였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나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손대표)가 우리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지에 대해 의사를 밝혔고, 나는 이에 대해 실망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손 대표와 버시바우 대사는 사적으로 대화하는 관계도 아닐 뿐더러 쇠고기 문제가 사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며 "전국민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고 한미 간 중대현안이 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 대사가 야당 대표에게 항의한 것이 어떻게 사적대화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